

사료업계에서 바라본

# 낙농업계, 2014년 결산과 2015년 전망



안 대 봉

(주)카길애그리퓨리나 퓨리나사료 축우마케팅 이사

## 2014년 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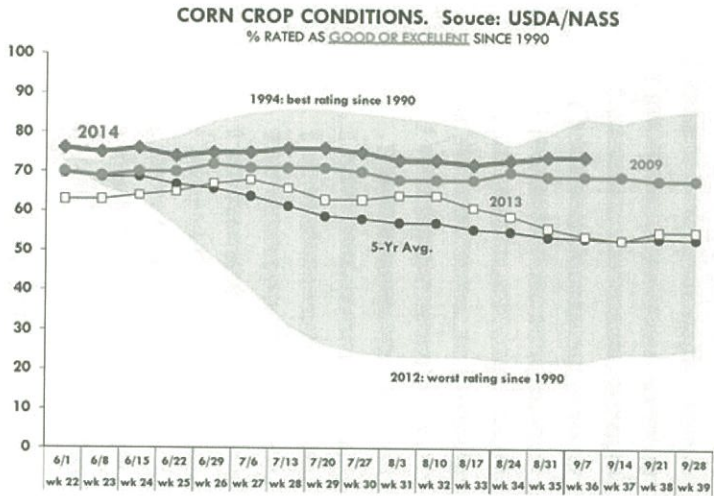
### 1. 안정적 곡물 및 조사료 시장

지난 3월부터 안정적으로 1\$당 1,050원 미만으로 약세를 유지해준 환율의 영향과 미산 옥수수의 생산량호조, 가뭄 지역 감소로 인한 미산 조사료 작황 호조는, 지난 2014년 우리 목장의 생산비를 큰 등락폭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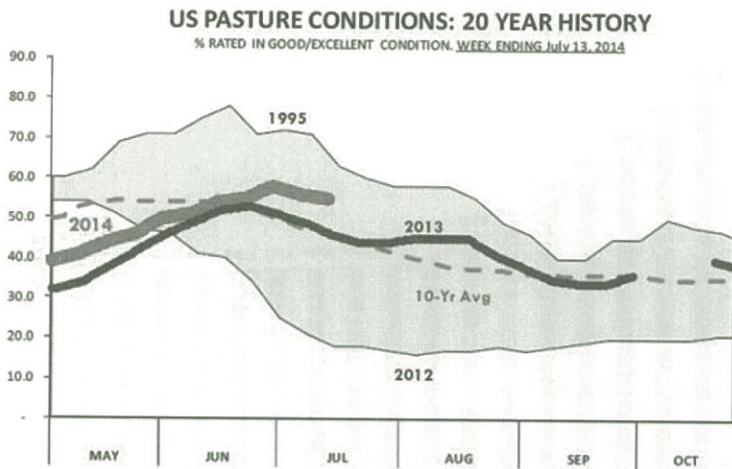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10월 30일자로 발표된 미국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중단 선언으로 인해 환율이 급격히 인상되어 현재 1\$당 1,100원선에 도달하였고, 또한 미국 항만노조의 파업과 조사료 쿼터 수입 배정 지연으로 인한 조사료 수급 불안이 당분간 우유 생산비를 약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원유 수급 상황

안정적 생산비와 원유가격은 목장이 납유량을 늘리고 규모 확대를 추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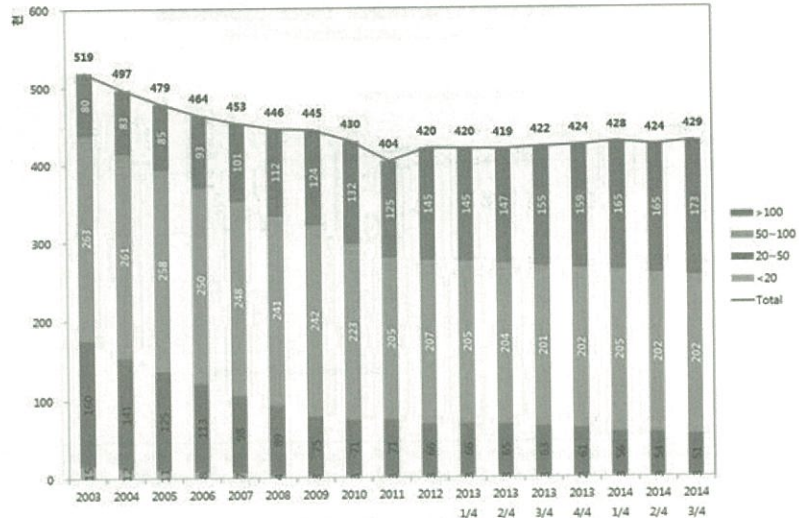


미산 옥수수 작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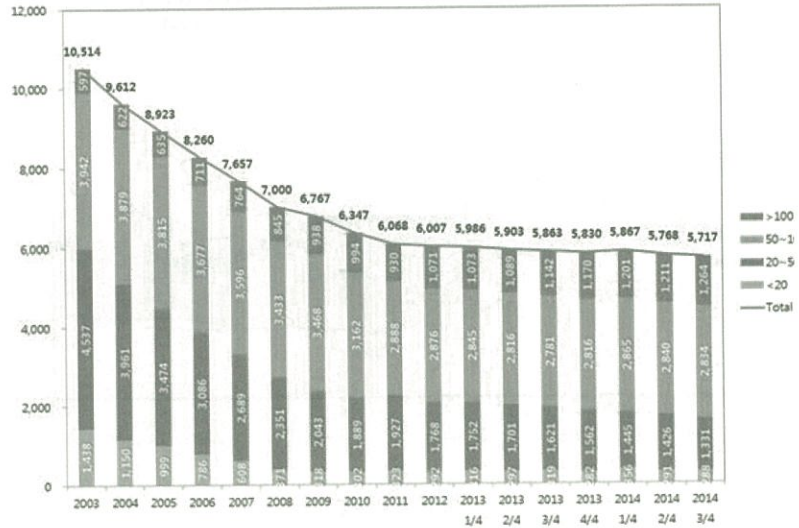


미 방목지 현황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으며, 이를 반증하듯 원유쿼터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목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22.1%인 1,264농가에서 총 사육두수의 40.3%인 173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런 규모화 추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육규모별 젖소 사육두수



사육규모별 사육호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3/4분기까지 국내 원유 생산은 5.2%, 수입 유제품은 7.0% 증가하여 국내에 공급된 유제품 총량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담보하고 시유 구매가 4.6% 감소한 것이 현 분유재고량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유제품 수입국(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수입량은 감소하는 반면, FTA 체결로 혜택을 받고 있는 미산 탈지분유와 치즈, EU산 혼합 분유 수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산 분유 사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현 원유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3. 국내산 원유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과 K·MILK사업

국내산 원유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가공용 원료유 지원 사업, 학교급식 확대 등)과 유업체의 수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산 분유의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협회에서 주도하여 진행한 ‘K·MILK’ 사업은 소비자에게 원유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산 원유 소비를 근본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향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체계적 협력을 통해 ‘K·MILK’ 브랜드의 홍보를 강화하고 국산 우유의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해 나간다면, 증가하는 수입 유제품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산 유제품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15년 전망

### 1. 곡물 및 조사료 시장 전망

2014년 풍성했던 옥수수 작황의 효과는 2015년 상반기까지 국제 곡물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작부면적이 결정되고 파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유통되는 사료원료 및 조사료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고, 이 상승폭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사료용 원료와 조사료 가격이 상승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외환 보유고와 거시 경제정책에 따라 환율의 변동폭과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겠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달러의 강세, 수출 주도형 경제구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달러 강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생산비에 대비해 목장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 투자는 안정적인 목장경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 2. 원유 수급 전망

목장의 규모화, 전업화 추세와 함께 FMD이후 재건된 21만여 두의 착유우 생산성을 감안해 볼 때 2015년 국내 원유생산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크게 없으나, 납유 쿼터와 관련한 정책적 결정 및 초과 원유에 적용하는 유대에 따라 납유량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본적인 잉여원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급식 확대, 가공용 원료유 지원사업 확대가 도움이 되겠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산 원유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원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K·MILK' 브랜드와 함께 꾸준히 알리고, 낙농업계 종사자들 모두 합심하여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3. 2015년 목장 경영 방안

장기적 관점에서 우유 생산비 증가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유량 생산성 향상’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조건 유량만 증가하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효율적으로 유량이 증가하도록 ‘비유 효율’ (Lactation Efficiency, 우유 생산량을 건물섭취량으로 나눈 값으로 낙농에서 사용되는 사료효율 개념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목장의 비유효율을 높이고 보다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여러 요소가 개선되어야 하지만, 낙농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 목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 포인트는 ‘젖소의 편안함’ (Cow comfort)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와 활용’입니다. 젖소가 섭취한 사료가 우유로 잘 전환되려면, 충분하고 깨끗한 사조와 물통, 휴식공간의 확보로 목장에서 지출하는 사료비를 영구적으로 절약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료비 자체를 줄이기 위해 저가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요구량 대비 사료 공급량을 줄여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행동은 목장의 미래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2013년 8월부터 적용된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의 시행으로 국산 원유의 생산기반은 공고해 졌으며, 목장을 경영하는 낙농가에게 안정적 경영환경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당 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시유 소비에 의존적인 국내 원유 수급 구조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국산 우유의 우수성을 알리는 ‘K·MILK’ 사업의 확대는 안정적 소비 기반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국내 원유의 안정적 소비를 만들어 내면서, 이를 기초로 튼튼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야 하겠습니다. ☺